

2013 KMEDC를 갔다와서...

<p>일 시 : 2013년 7월 3일 ~ 5일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주 관 : 전북대학교 공학교육 거점센터, 공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p>	<p>전자공학과 고희호</p>
<p>융복합 창의설계 경진대회는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대회입니다. 대회 첫째 날 3시간 짜리 창의교육에 있어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점수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평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날밤을 새워가며 정확한 뜻도 모른 채 외웠었고, 그것을 응용할 시간 아니 응용을 해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해 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3일 내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귀중한 경험을 준 대회임에는 확실합니다.</p> <p>첫째, 리더의 경험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때나 중학교때 반장을 해본적은 있었지만 어떤 대회의 리더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기위해 이끌어 본적은 더 더욱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음 한편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잘 이끌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좋은 조원을 만났고 특히 의사소통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더의 역할에 있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 점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의 융합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융합이라는 부분을 간과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융합은 목적지향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든지 열린마음으로 융합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몰랐기에 서로의 기술만을 사용하려 했고 이점이 첫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융복합에 있어서 리더는 기술의 융합뿐만 아니라 마음의 융합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p> <p>둘째, 창의적 생각도출의 경험을 주었습니다. 이번 재료부분에 있어서 나의 전공인 전자 기술을 사용하고 응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만으로 그칠 수 있었던 부분을 실생활에 접목시켜 보았던 점,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려 해보았다라는 점은 나중 나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나 모임활동에 있어서 생각을 도출하는데 많은 경험이 될 것이며, 생각을 도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p> <p>셋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의 경험을 주었습니다. 3일을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중의 하나는 발표 했던 순간입니다.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또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학생들 속에서 나의 조원을 대표하여 발표를 한 기억은 아직도 흥분되며 떨립니다.</p> <p>특히 이번 발표는 정해진 5분기간내에 우리의 준비했던 부분을 모두 보여주어야 했다는 점에서 더욱 떨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융복합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협동하여 얼마나 융합되었느냐를 발표속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발표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장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각시키느냐, 그리고 대회의 기준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끝으로 융복합기술은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산업계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넘어서 융복합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융복합시대에 맞춰서 서로 다른 분야를 응용하고 융합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학생할에 있어서 내가 해보았다 라는 점은 나의 전문능력과 자질, 현실성 있는 공부, 기본소양과 전공기반 실력 그리고 자질을 키우는데 있어서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